

광주시교육청,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생명과학 실험· 게임제작 등 57개 이색· 심화과목 운영 학생 790명 참여... "진로· 관심 같은 친구들과 수업, 강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고등학교 79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명과학실험, 물리실험, 화학실험 등 다양한 실험과목과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전문교과부터 시장·정음, 합주, 체력운동, 체육탈구 등 예술·체육 관련 과목과 아랍어 I, 스페인어 I, 공중보건, 컴퓨터 게임프로그래밍까지 57개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학생들을 맞았다.

강제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면 괴롭겠지만 참여 학생들은 신이 났다. 관심사가 같은 또래 친구들이 모이니 일단 재밌고 진로가 확고해진다 는 반응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비롯한 27개 거점학교에서 57개 과목이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대비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청에서 마련했다.

시교육청 박은영 장학사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심화 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웃학교와 협력해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의 벽을 넘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는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학생들은 각 거점학교에서 수요일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 오전 시간에 모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급물리 과정을 듣는 서강고 3학년 정주희 학생은 "공학 계열을 희망하기 때문에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으로 (고급물리를) 신청해 듣고 있는데, 저와 진로와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니 소통이 잘

된다"며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진로의식이 더 확고해졌고 후배들에게도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지난 2016년 3개 과목으로 처음 개설돼 2018년 1학기 37개 과목이 운영됐다. 올해는 57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어 지난해 대비 54% 이상 증가했다. 학생 수강신청과 호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8월 중순부터 강좌 개설 승인 및 수강 신청이 이루어져 9월부터 수업이 운영될 계획이며 2학기에도 최소 50여 과목이 개설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동림 과장은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을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빛고을고 전담교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실시간·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다양해서 더 즐거운 화순교육

화순교육지원청 '다 어울림 한마당' 성료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28일 화순광덕문화광장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 어울림 한마당'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다문화·비다문화 가족 간 상호소통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예술동아리인 '다사랑관아향상'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 어울림 체험관, 세계 여러나라 광광 포토존, 별별 세계 여러나라 음식여행, 세계 전통놀이, 로봇만들기, 드론 체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되었고 동시에

다문화 인식개선을 돕기 위한 글짓기·그림그리기·사진콘테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화순군청, 화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순경찰서, 화순지역 아동센터 등 다문화가정 학생 및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가정상담, 포레상담, 학교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교육지원청 최원식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 확산 및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연계·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맞춤형 교육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S/W 체험 마당 창의력 쑥쑥

전남초등실과교육학회, 무안초에서 800여명 참여



전남초등실과교육학회(회장 박헌주·동화초 교장)가 28일 무안초등학교에서 도내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4회 전남초등실과 체험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서로 돕고 가르쳐 모두가 함께 하는 실과체험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실과교육 과정을 근거로 가족 나눔, 자연 나눔, 사회적 나눔 3개 유형 12개

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S/W 체험 마당을 운영했다.

S/W마당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비트브릭' '아이언맨 로봇' 등 로봇을 활용한 S/W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딩 로봇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접하기

힘든 로봇을 활용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S/W교육, 증강현실(AR)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게 됐다.

S/W체험에 참여한 임은주(무안초 6년)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장에서 보는 로봇의 코딩 방법이 달라 S/W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나의 진로를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이 나의 식물 화분에 물주기를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는 호기심도 갖게 됐다"며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S/W마당을 운영한 김희진(남평초) 교사는 "전남초등실과교육학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확산과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제 코딩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S/W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학부모는 "발로만 튕던 로봇, 증강현실(AR), 4차 산업혁명이 평소 멀게만 느껴져 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나년에도 자녀를 데리고 함께 참여해보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순천대 생명과학대학 '춘계농촌봉사활동'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공감학생회는 최근 3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촌을 찾아 춘계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학 학생 156여 명은 담양(1구·2구마을)과 벌교(원동·전동마을), 남일(하주마을), 고흥(내담마을) 등 지역 농촌을 방문해 국화꽃 심기와 딸기 따기, 배 선별 작업, 고춧대 심기, 마을회관 주변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 산 공감학생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다"며 "생명대 학생들이 우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협동심과 단합심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보람됐다"고 밝혔다.

생명산업과학대학 공감학생회는 이번 춘계농촌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계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문림의향의 일을 찾아서"

장흥초등교장단 전문학습공동체 장흥 부촌정과 김녹촌 생가 방문



장흥초등교장단 전문학습공동체 '문림의향의 일 연구회'(회장 백남현)는 지난 20일 장흥 부촌정과 김녹촌 생가를 방문하는 등 문림의향의 일 계승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장흥군 부산면 소재 부촌정은 남평문씨 회개(希凱: 호 정영(淸潁) 1550~1610년)가 정유재란 뒤 고향에 돌아와 세운 것으로 창건 당시에는 정영정(淸潁亭)이라 불렀으며 주변이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흥의 명소이다.

이어서 녹촌 김준경 선생의 생가를 방문하여 조카인 김기홍(전 장흥문화원장) 선생의 해설을 통해 "우리나라 이동문화의 빼어난 필봉(筆峰), 높은 글봉우리, 녹촌 선생님을 장흥의 학생들도 잘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흥의 초등 학교부터 녹촌 선생을 알고 찾아야 한다."는 아쉬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의 글쓰기지도에 헌신하시고 한국이동문화 수준향상과 저변확대에 공헌하신 녹촌 선생님의 문학을 장흥 관내 학교에서부터 알기 위해 녹촌 선생 생가 찾기, 녹촌 선생님 문학작품 읽기, 녹촌 선생님 동시집 비치, 녹촌 백일장 등의 활동을 학교에서부터 실천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